



## 2천년대 환경계의 마지막 선비

### 故 정영호 박사님을 추억하며... <3>

글 / 사진 : 박창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3고 정영호 박사님은 우리나라 자연과학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그럼에도 고인이 사셨던 당시나 오늘 날에도 고인이 사회나 자연보호계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고인이 워낙 성품이 조용하셨던 것도 있었지만, 앞에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또한 고 이민재 박사와 같은 은사나 대 선배가 앞에 계셔, 항상 뒤에서 조용히 지내셨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어떤 모임을 구성하여, 참석을 권하면 승낙하셨다가도 나중에 그 자리에 은사나 대 선배가 참석하는 것을 알게 되면, 참석을 사양하셨다. 어떻게 은사나 대 선배와 나란히 앉아 학문을 논(論)하겠느냐? 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쩌다 은사나 대 선배와 자리를 함께 하게 되면, 꼭 말석을 고집하시고, 토론의 자리에서는 결코 앞에 나서서 의견을 내놓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회자가 토론을 지목하면, 앞서 말씀 하신 스승이나 선배의 의견을 따르는 말씀으로 토론을 피력하셨다. 한마디로 조용한 선비셨다.

자연을 보호하는 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작업이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남'을 배불리는 이 어부는 오늘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 가신 환경 선배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